

호수의 낭만과 우리 음악의 풍류가 흐르는 평택호 관광단지

평택호는 1973년 바다였던 평택시 현덕면과 충남 아산시 인주면 사이에 방조제를 쌓으면서 생긴 24km² 규모의 인공호수다. 다양한 볼거리와 편의시설이 조성돼 평택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꼽힌다.

호수 한가운데 있는 수중고사분수는 수면 위로 105m까지 치솟아 보는 이의 가슴을 시원하게 적셔준다. 수상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각종 체험 시설이 마련됐고, 끝없이 이어지는 목조수변데크를 걸으며 멋진 호수를 감상하고 주변의 횃집 촌에서 신선한 회도 맛볼 수 있다. 단지 내 조성된 한국소리터, 평택호예술관 및 모래톱 공원에서 예술작품 상시전시와 음악회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.

소리 의자

소리 의자는 평택을 대표하는 문화 테마 3가지에 부합하는 의자 모양과 소리가 연출됐다. 테마별 의자에서는 지영희 선생 국악, 평택 농악과 민요, 국민 애창 동요를 감상할 수 있다. 의자 내 혹은 음원 설명부착란에 설치된 버튼을 누르면 센서가 작동해 쉽고 편리하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.

평택호 예술관

피라미드형 건물로 1층은 대형전시실, 2층은 다목적홀, 3층은 명상 공간이다. 1년 내내 다양한 문학, 사진,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.

모래톱 공원

평택호 호수 내 모래를 준설해 자연의 생태를 직접 경험하는 공간을 조성했다. 놀이터와 모래톱 공원 및 기타 잔디밭 등지에서 가족과 함께 시원한 호수 바람을 맞으며 힐링 타임을 가져보자.

수중고사분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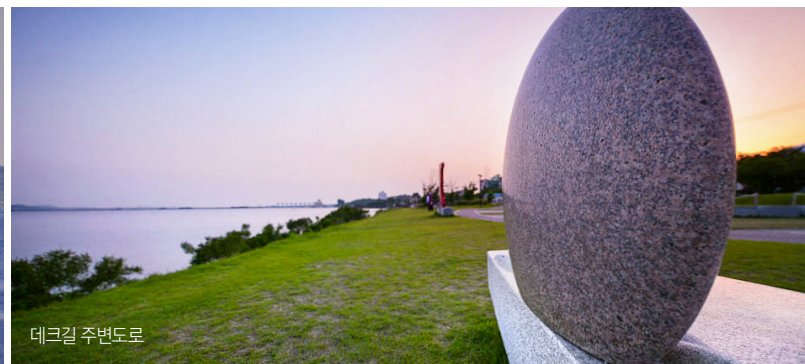
105m 수중고사분수는 분수 연출이 아름답고 조화롭게 설계됐다. 행사·환경·계절 등의 조건에 따라 다양한 색상을 연출, 솟아오르는 기상을 강하게 투사해 평택호 관광지는 물론이고 서해대교에서도 분수대가 가시권에 들 수 있도록 했다.

목조수변데크

담수 면적 2천38만㎡의 천혜의 관광자원인 평택호의 자연경관을 관광객들이 친숙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친수공간이다. 수변 데크 가운데 뱃머리 전망대가 있으며, 평택호 관광단지의 랜드마크 및 포토존 역할을 하고 있다. 바다와 호수를 동시에 만끽할 수 있는 수변형 관광지인 평택호에서 오붓한 데이트와 추억을 만들어 보자. ▼



뱃머리 전망대



데크길 주변도로